

여러 심사위원들과 함께 총 34작품의 지원작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. 대부분 작품들이 기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. 독일 및 유럽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작품이 소비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사업 적합성에 부합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만, 새로운 소재 및 장르적 특별함을 내세운 신규 업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

선정된 업체에서도 기존 IP 외에도 새로운 IP 및 서사 구조가 독특한 장르를 별도로 사업 전면에 내세우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

이번 모집에 선정되지 못하신 기업도 개별적으로 유럽 진출에 성공하시길 기원하며, 선정된 작품과 기업에는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.